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4월 13일 (제 1301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나의 계획

나는 2050년까지 1차 계획, 그리고 2070년까지 2차 계획을 세웠다. 2050년이면 내 나이 100세이고, 2070년이면 120세가 된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한쪽은 “목사님, 뭇 하러 100세까지 계획을 세우세요? 인생을 정리할 시간인데.”이고, 다른 한쪽은 “역시 목사님이 십니다. 예측건대 목사님은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실 거예요.”이다.

나는 전자의 말에는 귀를 닫고, 후자의 말에 힘을 받는다. 아니, 80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누구이고, 85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갈렙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를 떠났고, 100세에 아들을 얻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나는 120세까지 살라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믿는다. 그런데 120세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뒷방 노인네로, 퇴물로 120까지 살 바엔 일찍 가는 게 낫지. 나는 사는 날까지 인생을 계획하고, 사도 바울처럼 뒤편것은 잊어버리고 목적인 바를 향하여 질주하련다. 그래서 내 평생에 은퇴는 없다. ‘꿈이 없으면 늙고, 쓰지 않으면 녹슨다’, 내가 쓴 잠언이다. 권천국 목사님은 90이 넘으셨지만 아직까지 현역이시다. 그분이 얼마 전에 나를 찾아와, “목사님,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하시길래, 나는 “목사님, 일을 그만두는 순간 확 늙어버립니다. 힘도 빠지고 정말 노인이 되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세요.”라고 했다. 내가 몰인정한 결과? 아니다. 나는 그분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 넣어드린 것이다.

계획이 없는 삶은 정처 없이 흐르는 물과 같으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한 전략이 아니겠는가.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룬 후 김일성광장에서, 더 나아가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목청껏 전할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 여정,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멕시코 쌀띠요 2차 집회

멕시코(Mexico)로 떠나며 이 글을 씁니다. 멕시코는 우리 교단의 해외선교 역사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번으로 무려 45회에 걸쳐, 52개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국내조차 이렇게 많은 도시를 다녀보지 못했는데, 목사님은 그로 인해 멕시코 명예시민권도 받으셨고, 중남미에서는 가장 저명한 동양의 부흥사이십니다.

지난 2004년 이후 무려 21년 만에 방문하는 쌀띠요(Salttillo)라는 도시는 멕시코 동북부 코아우일라(Coahuila)주의 주도(主都)입니다. 멕시코 첫 방문 이후 한국의 영성세미나에도 여러 번 참석했고, 총회장 목사님이 지구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환상을 보았다는 헤라르도 목

셨다고 믿습니다.

이번 집회는 2004년 집회 당시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었던 까를로스 알베르토(Carlos Alberto) 목사가 준비했습니다(250호 신문 참조). 그는 쌀띠요 도시의 청소년들, 특히 마약과 매춘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갱생하여 먹이고 입히며 성경을 가르치는 특수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몬테레이(Monterrey) 집회 때 신학생들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여전히 성령충만한 모습으로 역시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분입니다.

멕시코로 떠나시기 전, 목사님은 이번 쌀띠요 집회에 대해 성도 여러분의 합심기도를 수차례 부탁하셨습니다. 어느 집회나 목사님이 가시는 곳에는 성령의 뜨거운

주일에배 시간과 겹치는 집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때입니다. 물론 목사님은 집회에 나가시면 오직 기도에 전무하다시피 하시지만, 한국에서의 든든한 기도가 뒷받침되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미 이 글을 보실 때면 쌀띠요 집회의 상황을 사진 등을 통해 보셨을 것이고, 다시 한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이 쌀띠요에 나타난 현장을 목도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항상 집회에 나서고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무감을 갖는 것 역시 당연하겠지만, 노랑진 기도회를 비롯



사는 지난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눈물로 기도했고, 몇 달을 사경을 헤매며 산소통을 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칠레(Chile) 란카구아(Rancagua) 집회에 산소통을 끼고 있던 여인이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믿음으로 호스를 제거한 후 고침을 받은 그 영상이 눈 앞에 펼쳐지면서 순간 자신도 코에 연결되어있던 산소 호스를 빼버리고는 벌떡 일어나 병실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시로 코로나에서 고침을 받았으며 몬테레이 집회 때 숙소로 아내와 함께 찾아와 간증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수많은 집회를 준비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

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마련이고 그에 따르는 어려움이란 당연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를 타고 다닌다’고 고백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실입니다. 해외선교 35년의 역사 가운데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렸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마음껏 증거하며 지구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쁨으로 이 사명을 수행하셨을 목사님께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느끼는 때는 한국의

한 전국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에 더욱 든든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연대의 힘이 있기에 우리 교단의 해외선교는 항상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집회 역시 그 영적 연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함께 일한 상을 받는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런 연유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계22:12).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멕시코 쌀띠요 집회

2025년 4월 8일(화)~18일(금)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애1:1~7)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자는 어리석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여 그 모든 꺾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함이여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 이보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여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함이여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애1:1~7).

위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그 슬픔과 처절함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哀歌)로, 전에는 영광스러웠고 번영했던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 무너지고, 외로움과 수치 속에 처한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대결은 멸망과 불행 협력은 성장과 행복

이 말씀을 읽노라니 우크라이나가 생각났습니다. 2011년 우크라이나 목회자세미나 영상에서 봤듯이 우크라이나는 자유를 구가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습니까? 노란 스카프를 매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던 우크라이나 목회자들은 성경 대신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 싸우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전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또한 슬라바 목사가 이끌던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회인 드네프로 예수중심교회는 이제는 노인들만 남아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슬라바 목사까지 소천했으니 예레미야처럼 제 마음에도 눈물이 강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감성에 빠져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울삼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본 우크라이나 사태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 분열로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고, 결국 전

쟁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에야 그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말하고, 상처가 깊어진 뒤에야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보는 듯해서 가슴이 저립니다.

여러분, 후회는 늘 일이 벌어진 다음에 찾아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는 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소가 있을 때 소가 잘 있나 살피고, 소가 나가지 않게 외양간을 살펴야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12:25).

이 말씀은 분열과 갈등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지고, 분열된 공동체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적인 원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역사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열하면 100% 공멸합니다. 여네 아네, 진보네 보수네 하고 싸우면 이 나라가 어찌 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면 윗동네가 신나서 ‘어서 더해라, 더해라.’ 합니다. 노사가 서로 싸우면 경쟁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인데, 왜 한배를 탄 사람들끼리 다투고, 왜 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끼리 대립하고, 한 가족끼리 대결합니까?

어부지리(漁父之利)라는 말 아시지요?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물고 싸우니까 지나가던 어부만 횡재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싸우면, 회사에서 노사가 싸우면, 정부와 국민이 대치하면, 국민끼리 싸우면, 교회에서 다투

이 일면 마귀와 귀신이 어부지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싸우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거할 때,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 아브라함의 가족을 기르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창13:8). ‘피붙이끼리 싸우지 말자, 싸워서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창13:9)하

며 싸움을 피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 되

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건 사공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만 되면 누구보다, 어떤 배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명의 친구를 보십시오. 뱃에서 서로 협력하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네 명이 협력하고 협동하니 사람이 많은 중에도 지분을 뚫는 기지를 발휘하여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내부적으로 하나 되었고,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

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4~47). 그들은 마음이 하나였고, 방향이 하나였기에 핍박 중에도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 이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결속의 힘을 말씀한 것입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은 그냥 찢어지지만, 그 종이를 겹겹이 쌓으면 총알도 막아낼 정도로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전4:9).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일하면 두 배가 아니라 열 배, 스무 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니,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17:21~22).

그러나 마귀는 서로 다투게 하고, 갈라지게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약3:14~16)고 하셨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만 터진다

여러분, 대립과 대결은 멸망이요, 불행만 초래할 뿐입니다. 바다에 사는 게는 물고 뜯는데 선수합니다. 그래서 게를 두 마리 이상만 넣어 놓으면 거의 도망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로 물고 뜯기 때문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5:15).

우리, 대결의 구도를 피하고 협력의 구도로 감시다. 서로 연합하여 단단한 국가, 기업, 가정과 교회를 만듭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133:1~3).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응답의 바로미터

지난 2022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개최했던 때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0년대 초 올림픽 공원을 예배처소로 써왔기 때문에 아주 친숙한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설립 연도가 오래다 보니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곳을 사용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광판이 속을 썩었습니다. 체육관 시설팀 측은 통상 대관하는 행사 주체들이 대부분 LED를 따로 설치하기 때문에 굳이 낡은 장비를 돈을 들여가며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도 LED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예상외로 LED 설치를 허락지 않으셨고, 실상을 보고드렸으나 없어도 무방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은 모두 영상기기를 통해 성경말씀이나 찬양가사를 보는 게 익숙해 있기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만일 당일에 화면이 오작동을 일으켜 말썽을 피우면 모든 화살이 영상 책임자인 저에게 돌아올 것은 자명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테스트해보니 화면이 수시로 끊어지며, 화면 곳곳이 깨져 보이거나 줄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 배운 것은 오직 기도. 체육관 설치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다 인 천교회로 들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이틀. 설상가상으로 체육관 측에서는 각종 현수막 설치에 방염허가증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정말 모든 게 위기였습니다. 아무런 현수막을 걸지 못한다면, LED가 속을 썩인다면 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어둠 속에서 그냥 방언으로 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절박해지니 우리 말 기도조차 안 나오고 그냥 ‘아부지, 알랄라라’만 나오더군요. 그런데 둘째 날 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점차 힘이 주옥 빠지면서 하나님께 뭘 구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기쁨과 감격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 그게 어찌 된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니 기쁘고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전혀 걱정도 되지 않고 가슴이 뿌듯하고 충만한 기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오후 늦게부터 마치 거짓말처럼 현수막이 실내 곳곳에 설치되었고, 성회 당일 아침, 전광판 쪽으로 올라가 전광판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한 게 다였는데, 그날 밤,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지만, 성회 내내 LED 전광판은 아주 선명하게, 잡티 하나 없이 잘 나왔습니다.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Henry Han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신비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거친 바위를 내리치자 하얀 물거품이 부서지고, 바위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차가운 바다 아래서 깎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파도가 모래사장에 닿자 부드럽게 스며들어 함께 춤추듯 물결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남편이고, 내가 바위라면 어떻게 될까요? 닥쳐오는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 내려 하면, 결국 파도는 상처 입고 멀어지고 바위는 밤새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모래가 된다면 어떨까요? 거센 파도도 모래를 만나면 부드럽게 스며들고 함께 어우러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바위 같은 내 마음이 모래처럼 부드러워진다면 그 안에 평온이 깃들고, 바닷속 물고기들이 춤추며 노래하듯, 가족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갈등이 깊어져,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애통하며 기도하던 중,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

랐습니다. ‘울타리를 헐 때는 울타리 칠 때를 기억하라.’ 그 순간, 남편과 가정을 이루기로 했던 첫 마음이 떠오르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실 비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남편이 변화길 바라기보다 자신이 먼저 변화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남편을 돌보자 남편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며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감사와 기쁨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도, 불행도 결국 네가 만드는 것이다. 진리는 이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먼저 부드러워져라. 예수님처럼 말이다.” 발도 마찬가지로 짚지요. 단단한 자갈을 치우고 흙을 부드럽게 해야 씨앗이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가정이 사랑과 화평으로 가득한 옥도가 될 것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5:15).

김진실 사모

:: 교단소식 ::

사랑의 확증을 보이라!

지난 5일, 서울 청년부에서는 이시대 목사님을 초청하여 1일 부흥회를 진행하였다. 목사님은 ‘희생은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최근 시간을 내어 신약 성경 전체를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구구절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솔로몬 왕과 솔라미 여인의 관계 같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신분이 낮은 유목민이자 얼굴을 검게 그을리고 누추한 여인에게 반하여 그녀를 궁궐에 입궁시키고 왕비라는 직함을 줍니다. 어느 날 왕이 밤늦게 여인을 찾아 문을 두드립니다. 여인은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옷도 갖춰 입고 발도 씻어야 하니 귀찮아 왕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왕이 돌아가고 그제야 왕에게 받은 사랑을 깨달은 그녀는 왕을 찾아 뛰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솔라미 여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요 15:13).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확증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습니다(롬5:8).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라미 여인처럼 교회 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가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총회장 목사님은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구를 150바퀴 도셨고, 천역을 뛰도 가지 않을 선교의 길을 예수의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 이번에도 출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확증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시대 목사님의 호소력 깊은 설교에 청년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내가 어떤 삶으로 답해야 할지 다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의 사랑으로 전 인류는 구원받았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알고(엡 3:18~19),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총회장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사랑의 확증을 보이자!

송현혜 성도



:: 생명의 말씀 ::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주일 늦은 저녁 시간,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자취방에 들렀다. 아이들의 얼굴을 잠깐 보고 자취방을 나오는데 계단에서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에게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과 딸, 두 남매가 있다. 주의 종 길을 걸어오면서 아이들에게 해준 것도, 해줄 것도 없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나와 떨어져 10년을 넘게 외할머니댁에서 자랐고, 아이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 주일 성수와 신앙으로 교육하려고 애쓴 것이 다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키워주셨다. 그것이 너무 감사했다. 첫째 아들은 대학교 4학년이고,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했다. 먼 곳에서 작정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서울 대학부에서 임원도 맡아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며 공부했다. 학기 중간에 해병대에 지원했다가 건강하고 무사하게 제대하여 복학했고, 지금은 동생과 함께 신앙생활 하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 둘째는 딸인데, 학원도 변변히 잘 보내지 못했다. 그

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의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입학하자마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서울 대학부에서 신앙생활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내가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고 좋은 것들이다. 아이들 스스로 독립심을 키우고, 주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아르바이트하며 자립하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키워주신 것이 더 크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감사했다.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간증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소소하고 잔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른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삼1:4)는 말씀처럼, 내 자녀들이 노량진 교육관 바로 근처에서 자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영광이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장순천 목사

:: 동행하는 삶 ::

:: 참된 깨달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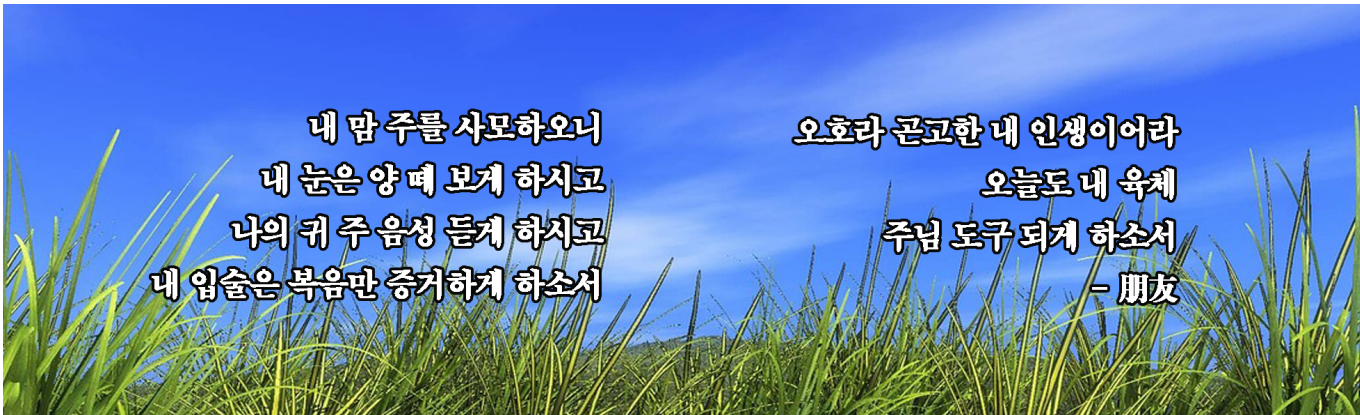
모든 것이 은혜

최근에 몸이 자주 아팠다. 목사님께서 재 산목록 1호는 몸이니 건강관리를 잘하라고 하셔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건강관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했던 걸 까. 얼마 전 부비동염으로 3주 동안 항생제를 먹으며 치료를 하였는데, 약을 오래 먹었음에도 증상이 낫질 않고 미각과 후각도 안 느껴져서 마음이 우울했다. 그러다가 낙심되는 마음도 생겼다. ‘왜 이렇게 자주 아픈 걸까? 건강하고 밝게 매일을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런 마음으로 속상해하고 있을 때 청장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로 중보하는 동역자 언니에게 연락이 왔다. 언니의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괴로운 마음을 토로했다. 언니는 내가 평소 팀에서 팀원들과 같이 성경통독을 하고 챙겨주니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악한 것은 효경이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

며 절대 흔들지 말고 힘내라고 마음을 다독여주었다. 이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싫어 안방 문을 닫고 기도했다. 월드 프레 이즈 기도 찬양을 틀어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달음이 왔다. 지금 내가 아픈 것도, 회복하는 것도, 이 모든 과정이 다 은혜임을, 내가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얼마 후 청장년부예배 때 이시대 목사님께서 인간의 본질이 피조물임을 잊고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태를 되돌아보라고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고 말씀 해주셨다.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또 내가 피조물인지라 평생 창조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이

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본질을 죽을 때까지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하셨다.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태를 되돌아보라고 이런 역경을 주신 것이었다. 부끄럽지만 나는 힘든 상황이 생기면 나를 되돌아보기보다 직분을 먼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어리석음을 고백한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웠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일생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 거라고 다짐하고 고백해본다. 모두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 주님을 향한 노래 ::

영혼의 메타인지

메타인지(Metacognition)란 1976년 미국의 존 플라벨이 만든 발달심리학 용어로, 자신의 인지 과정에 관한 인지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메타인지가 높아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반면,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몰라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죠. 무식한 자는 자신이 모른단 사실을 모른다는 목사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메타인지를 높여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것처럼, 예수 실컷 믿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면 그만큼 곤란한 일은 없을 테니까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봐야 하는지,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어떠한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곤란한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가까이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음성으로,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점검할 수 있게 경고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경고를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하고, 들었으면 깨닫고 옳은 방향으로 돌아키는 결단입니다. 올해 목회자 세미나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데, 첫날 월요일 아침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차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얼른 가서 넣어야 할 텐데, 제가 계속 운전만 하는 겁니다. 결국 차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고 나서야 겨우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미 영업시간이 끝나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유소 안에 사무실까지 들어가 보니 직원 두 사람이 있었고, 기름을 좀 넣어달라 하니 이미 영업시간이 끝나서 기계 작동이 안 된다고 저를 조롱하듯이 비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뒤돌아 나오면서 ‘보험을 불러야 하나’ 생각하며 잠

에서 깨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 영혼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주의 일 하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 영혼의 기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세미나 첫 시간부터 회개하고 집중적으로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 삼손, 가롯 유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간 자들입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때론 하나님이 명하신 길에서 어긋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달아 얼른 축복의 길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항상 내 영혼을 점검하고, 귀를 열고, 내 영혼의 메타인지를 높여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반드시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호민 전도사
fioe154@naver.com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저는 분기마다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골프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사모하는 것은 운동을 한다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라운딩하면서 장로님들의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로님은 자고 일어나니 안면마비가 왔는데 믿음으로 귀신을 쫓고 완치 받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른 분은 파산 직전의 사업이 중보기도를 통해 놀랍게 회복된 과정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또한 감동적이었던 간증은 옥함을 깨뜨린 여인처럼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오히려 가정과 사업에 물질적 축복이 넘쳐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로님들은 공통적으로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과 간증을 지근거리에서 들으며 믿음이 자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는 말씀이 장로님들의 삶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단순히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간증들을 듣는 동안 저는 ‘들음’이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는 것이 제 영혼육의 성장에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장로님들의 간증은 제 삶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40여 년을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들으며 꿈을 키웠듯이, 저 또한 장로님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저의 신앙의 여정을 후배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약2:22). 송명국 집사
songmkook@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춘계 산상집회

날자: 4월 28일(월) ~5월 1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
문의: 02. 533. 9191